

LG마이크론, LG이노텍 합병 효과적

동양증권, 2009년 1월 이전 합병 가능성 ... 종합 부품기업 입지 강화

동양증권증권은 8월29일 LG마이크론에 대해 LG이노텍과의 합병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다며 목표주가 5만8000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최현재 동양증권증권 애널리스트는 “양사간의 합병 검토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유물로 LG이노텍의 상장 이후 합병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합병 시기는 대주주 보호예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이후로 예상됐으나, 규정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합병되면 제품 구성면에서 겹치지 않고 공동비용 절감 효과와 규모의 경제로 투자이사 결정이나 자금 동원력 측면에서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 부품기업으로서의 입지 강화와 고객 대응력 향상되는 등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9>